

나도향 소설에 나타난 전망과 서술의 신뢰성 고찰

- 「병어리 삼룡이」를 중심으로 -

김정희*

|| 차례 ||

1. 서론
2. “초점주체”와 “신빙성 없는 화자”
3. 1인칭 서술의 신뢰성
4. 전망
5. 결론

【국문초록】

나도향에 관한 고정된 평가는 천재성과 요절이라는 비극적인 생애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그의 소설을 이해하는 데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의 연구도 그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병어리 삼룡이」의 삼룡은 행동적 대결능력이 결여된 인간으로 표현된다. 그의 신분이나 외모에 관한 묘사와 병어리라는 것에서 우리는 궁핍하고 모순된 환경에 억압된 무력한 인물을 본다. 내면적으로는 선량하고 충직한 하인의 신분인 삼룡은 핍박을 받고 굴욕적인 생을 살면서도 각성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새아씨를 향한 연모의 정을 가짐으로써 억압된 현실에 맞서게 된다. “불”과 오생원 아들의 횡포, 폭력 등의 극단적인 요소와 죽음에 대한 결말은 당시 식민지의 상황과 긴밀한 관련을 가진다. 탈출구가 없는 현실에 대한 최후의 선택이다. 그것을 소설 처음에 등장하는 “나”라는 화자가 인식한다. “나”의 시선에서 바라본 삼룡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 작품의 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화자는 소설의 첫 문장에 나오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병어리 삼룡이」는 “신빙성 없는 화자”가

* 상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회상을 통해 서술하는 1인칭 소설이 된다. 따라서 이 “신빙성 없는 화자”의 서술을 통한 삼룡의 삶과 죽음에 관한 서사는 신뢰성의 여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주제어 : 나도향, 병어리 삼룡이, 초점화, 초점주체, 1인칭 서술, 전망, 죽음, 신빙성 없는 화자

1. 서론

나도향 소설에 대한 대체적인 논의는 그가 초반기의 과도한 감상성을 드러내는 습작 위주의 작품에서 탈피하여 후기로 갈수록 감정을 절제하고 객관적 현실을 보여주는 사실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경향의 작품을 보여주었다는 것¹⁾과 “낭만주의의 폐해와 의의 양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본보기”²⁾라는 감상성과 낭만주의적 경향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낭만적 사랑과 성적 욕망의 문제에 대한 고찰까지 실로 다양한 측면으로 진행되었다.

이재선은 “나도향의 작품세계에서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죽음이 제시되고 있다. 『물레방아』(1925)와 『병어리 삼룡이』(1926)의 경우가 그것이다. 죽음에 반응하고 있는 서로 다른 양상을 낭만과 현실이라는 두 개의 주된 시계가 교호하는 그의 문학의 음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불과 5년간의 창작 생활에서 이 낭만과 현실이란 두 개의 시계는 확연할 만큼 어떤 단계적인 전이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양자의 음역이 복합적으로 서

1)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인간사, 1968, pp.581-582.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 선명문화사, 1973, p.185.

윤홍로, 『나도향-낭만과 현실의 변증』,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7, pp.34-35.

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5, 지식산업사, 2005, p.179.

로 교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그를 순수 리얼리스트로 봄에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³⁾라고 하였다.

한점돌은 대부분의 연구가 “대체로 문예사조에 입각하여 이루어져 있고 그 논조 또한 대개 일치한다”⁴⁾고 지적하고, 기계적인 도식에 그친 나도향 소설을 연대순으로 배열하여 그 변모 양상을 연구하였다.

나도향 소설에 나타나는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흥분을 낭만적 열정이나 사랑으로 파악하는 견해⁵⁾와, 열정이나 정욕, 성욕의 의미를 욕망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견해⁶⁾도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나도향의 천재성과 요절이라는 비극적인 생애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나도향은 『여이발사』, 『행랑자식』에 이르러 사실주의 내지 자연주의 소설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작품을 쓰기 시작했으며, 『병어리 삼룡이』, 『물레방아』, 『뽕』등에서 인간의 본능과 물질에 대한 탐욕 등을 탁월하게 묘사하는 재능을 발휘하였다. 이들 작품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아름다운 조화보다는 돈의 개입으로 인한 사랑의 파괴, 계급사회에서의 차별적 인간관계, 또는 극단적인 가난과 생활고 때문에 빚어지는 인간성 상실 등의 현실과 물질에 의해 변모해가는 인간의 속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의 추악함, 즉 인간의 원초적 욕망과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모하는 인간의 속성, 여성의 성을 물질과의 교환가치로써 인식하는 세태, 태생

3) 이재선, 『현실의 지각과 이데올로기적 세계관』,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pp.258-259.

4) 한점돌, 『한국 현대소설의 형이상학』, 새미, 1997, p.139-153. 참조.

5) 장수익, 『나도향소설과 낭만적 사랑의 문제』, 『한국문화』 제23호, 1999.

김윤선, 『나도향소설에 나타나는 ‘낭만적 사랑’의 문제』, 『우리어문연구』 제18집, 2002.

오양진, 『낭만적 주체성의 형성과 전개』, 『우리어문연구』 제19집, 2002.

6) 이혜령, 『성적 욕망의 서사와 그 명암』, 『반교어문연구』 제10집, 1999, p.293.

서재원, 『나도향 소설에 나타나는 열정의 의미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19호, 2003.

적인 신분과 세습의 모순 등을 그린 것은 그가 리얼리즘 작가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병어리 삼룡이』는 나도향이 요절하기 전에 쓴 소설로 주요 인물인 삼룡의 삶을 주축으로 전개하고 있다. 『병어리 삼룡이』의 삼룡은 주인집에 불이 나자 자신이 흠모하는 새아씨와 함께 죽는다.⁷⁾ “불”과, 주인의 횡포와 폭력 등의 극단적인 요소와 죽음에 대한 결말은 당시의 식민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탈출구가 없는 현실에 대한 최후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죽음은 삼룡에게는 “더 좋은 세계”⁸⁾이다. 그것을 소설 첫 문장에 등장하는 “내가”라는 화자가 인식한다. 바로 이 “나”의 시선에서 바라본 삼룡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 소설의 주제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나”라는 화자를 배제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소설에서도 “나”라는 존재는 첫머리에 나오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소설 전달 양식은 시작에서 가장 뚜렷이 표명되는데 그것은 독자의 상상력이 서술의 실제 양식에 맞춰지는 과정이 그 소설의 첫마디에서 시작되기 때문⁹⁾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병어리 삼룡이』의 화자는 “신빙성 없는 화자”¹⁰⁾가 된다. 따라서 이 화자의 시점에서 바라본 삼룡의 삶과 죽음에 관한 서술은 신뢰성의 여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7) 이 결말에 대해 대부분의 논자는 새아씨를 구하고 삼룡이 죽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조동일은 새아씨와 함께 죽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본고에서는 조동일의 의견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목숨이 다한 줄 알았을 때 그 색시를 내려놓 때는 그는 벌써 목숨이 끊어진 뒤였다.”(p.45)라는 문장 때문이다. 여기서 “그”는 새아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고는 본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5, 지식산업사, 2005, p.181.

8) 나병철, 『근대성과 근대문학 -리얼리즘·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 문예출판사, 1995.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의 고리오 영감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본 라스티낙의 말로 나병철은 이 말을 <유토피아적 전망>의 측면에서 파악한다.

9) Franz K. Stanzel, 『소설의 이론』, 김정신 역, 탐출판사, 1982, p.231.

10) 웨인 C. 부스, 『소설의 수사학』, 최상규 역, 예림기획, 1999, pp.217-218. 참조

2. “초점주체”와 “신빙성 없는 화자”

즈넉스와 미케 발의 초점화 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리먼-케넌¹¹⁾은 초점화의 의미는 시각적 의미만이 아니라 인식적이고 정서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지향성을 갖는다고 하여 그 시공간적 심리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대해 논한다. 미케 발은 초점화 유형에서의 외적 초점화와 내적 초점화를 “초점주체”의 위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외적 초점화에서 초점주체는 이야기 세계 밖 화자이고, 내적 초점화에서 초점주체는 이야기 세계 속 인물이다. 발은 외적 초점화와 내적 초점화를 맞세우고 외적 초점화의 초점주체는 화자이고, 내적 초점화의 초점주체는 인물임을 밝혔다.¹²⁾이 이론을 수용하여 논의를 진행하면 『병어리 삼룡이』는 외적 초점화의 초점주체인 화자 “나”가 내적 초점화의 초점주체인 “삼룡”을 그렸다고 볼 수 있다.

즉 화자가 초점 대상 인물에 대해 메타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이럴 때 화자는 “후회, 개심 또는 통찰을 통하여 일종의 변화를 거치고 난 연후에 비로소 그들의 인생을 서술”¹³⁾한다. 그럴 경우 그의 지각과 인식의 한계는 상당 부분 극복되고, 서술적 자아는 소설의 내용을 이루는 자기의 그 체험들을 겪은 이래로 내적 성장을 이룩하여 더 원숙하게 되었고 더 많은 통찰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화자인 “나”는 자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인물, 다른 공간, 사건의 진행 방향에서도 전지의 특권¹⁴⁾을 가질 수

11) 리먼-케넌의 초점화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설명은 우스펜스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김병욱 외 역, 『서사론』, 형설출판사, 1993. 리먼-케넌의 초점화의 각 측면에 관한 설명은 정현숙, 『신빙성 없는 서술과 내적 초점화』, 『현대문학이론연구』제4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pp.361-363. 참조.

12) 미케 발, 『서사란 무엇인가』, 한용환/강덕화 역, 문예출판사, 1999, pp.181-206. 참조.

13) F. F. Stanzel, 『소설 형식의 기본 유형』, 안삼환 역, 탐구당, 1982, p.61.

14) 나병철,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2012, p.454.

있다.

화자의 신빙성 문제는 웨인 C. 부스¹⁵⁾에 의해 처음 제기된 것이다. 그는 이 신빙성이라는 개념을 작품전체의 지배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내포작자에 준하여 생겨나는 서술자와 서술내용에 대한 거리의 양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신빙성 없는 화자”가 서술하는 경우에는 작가의 고의적인 수사전략이 농후하고, 은폐되고 위장된 진실을 해명하기 위한 독자의 이해력과 인내도 부단히 요구되기 때문에 의미전달의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보았다. 신빙성 있는 화자란 작품 가운데 제시된 특별한 리얼리티를 내포작자의 규범에 맞게 대변하고 있는 자이며, 신빙성 없는 화자는 화자 자신의 어떤 특별한 치우침이나 오류로 내포작자의 규범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독자의 공감도 상실하는 화자¹⁶⁾이다.

1인칭 서술은 다른 서술 양식보다 친밀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 개인의 한정된 경험과 관찰에 의한 서술이기 때문에 지식과 판단, 또는 기억 등에 있어서의 한계는 늘 비신빙성의 가능성을 잠재할 수밖에 없다. 또한 1인칭 서술은 화자가 직접, 간접으로 체험하거나 관찰한 것을 회상형식을 통해 재현해내고 있으므로 상황성과 꺾진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라는 인물성이 주는 자기정체성 때문에 독자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1인칭 가운데서도 극화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찰자” 입장의 화자가 서술을 전개할 때

15) 웨인 C. 부스, 앞의 책, pp.217-218. 참조. 웨인 C. 부스의 입장은 작가적 존재를 부정하면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기법에만 우위를 두려는 기존의 규범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의 서술전략을 탐색하거나 작가, 서술자, 독자 사이의 상호 역관관계를 해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의 ‘내포작가’라는 개념도 이후의 서사담론이나 시점연구들에 수용되면서 서사를 하나의 전달체계로 인식하는 데 촉매역할을 하였다.

16) 웨인 C. 부스, 위의 책, pp.207-219 참조.

에는 서사적 상황과 참다운 진실에 대한 확실한 리얼리티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모방적 서사mimetic narrative의 자연스러운 형태¹⁷⁾가 될 수 있다.

그러나 1인칭 화자의 진술은 그 신뢰성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화자의 연령이나 지식의 정도에 따라 선입견이나 편견에 치우칠 수 있고, 화자의 회상을 통한 자신의 내면적, 외면적 삶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라는 이점을 갖고는 있지만 “서술하는 나narrating self”와 “경험하는 나experiencing self” 사이의 시간적, 정서적, 도덕적 거리감 때문에 관찰자나 부차적인 인물로서의 화자가 안고 있는 한계와 함정을 대동소이하게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화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그 선택, 평가, 보완의 과정이 화자의 현재 특성에서 비롯된 한정된 통찰¹⁸⁾이기 쉽다. 많은 경우 1인칭 소설은 내적 초점화 양상을 보이며, 내적 초점화 상황에서 인물 초점자의 특성에 따라 신빙성 없는 서술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1인칭 소설에서도 외적 초점자가 나타난다.

서술하는 때와 경험하는 때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서술 자아가 경험자아를 내려다볼 만큼 인식이 성장했을 경우, 서술 자아가 경험자아와 관련된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만한 위치에 있을 경우, 서술 자아는 외적 초점자가 되어 경험자아와 그가 경험한 사건을 바라본다. 이때 경험자아는 서술자아인 외적 초점자의 초점 대상¹⁹⁾이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1인칭 서술은 화자가 직접, 간접으로 체험하거나 관찰한 것을 회상 형식을 통해 재현하므로 독자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설 수

17) 로버트 솔즈·로버트 캘로그·제임스 펠란, 『서사문학의 본질』, 임병권 역, 예림기획, 2007, p.360. 참조

18) 이수정, 『‘믿을 수 없는’ 일인칭 서술 -1920~30년대 단편소설』, 한국소설학회 편, 『현대소설 시점의 시학』, 새문사, 1996, pp.171-173. 참조

19) F. F. Stanzel, 앞의 책, p.63.

있다. 특히 극화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찰자 입장의 화자가 서술을 전개할 때에는 서사의 리얼리티 면에서 상당히 자연스러운 형태가 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와 같이 화자가 극화되지 않은 진술은 그 신빙성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1인칭 서술의 신뢰성

본고에서 “신빙성 없는 화자”²⁰⁾를 중심으로 『병어리 삼룡이』를 논의하려는 이유는 “내가 열 살이 될락말락할 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십 사오년 전 일이다.”라는 첫 문장 때문이다. “열 살이 될락말락할 때”이고, “지금으로부터 십 사오년 전”이니까 화자는 현재 24세 정도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성인 화자가 유년의 기억을 회상하여 서술하는 1인칭 서사의 경우로 본다.

『병어리 삼룡이』의 기존 연구에서는 이 “나”라는 화자가 대부분 배제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연구들이 이 “나”라는 화자를 배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본고에서는 그 이유가 나도향의 다른 소설 『물레방아』나 『뽕』이 드러낸 전지적 서술의 외적 초점화 때문이라고 본다. 만약 『병어리 삼룡이』의 첫 문장 “내가 <…>”란 문장이 없다면 이 소설은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전지적 소설의 외적 초점자의 전형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병어리 삼룡이』는 이 첫 문장으로 인해 1인칭 소설이면서 “신빙성

20)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화자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작가가 주지 않은 특성을 화자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이 화자가 화자의 규범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또는 어떤 방향으로 떨어져 있느냐 하는 데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난다고 웨인 C. 부스는 보았다. 웨인 C. 부스, 앞의 책, p.218.

없는 화자“를 가지게 되고 말았다.

신빙성 없는 화자의 근거로는 화자의 제한된 지식과 개인적인 연루 여부, 또한 문제성 있는 가치기준과 화자가 소유한 특이한 정신 상태와 기억력의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주로 무자각의 문제라는 웨인 C. 부스의 견해는 신빙성 없음이 화자 자신의 의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근거가 된다. 이를 “듣는 이를 염두에 두고 말하려는 의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지각과 인식의 문제로 보고, 신빙성 없는 서술이 말하는 주체인 화자가 아니라 보는 주체인 초점자에서 비롯된 서술 현상²¹⁾임을 주장하는 논의도 있다.

『병어리 삼룡이』의 화자는 열 살이 될락말락할 때의 기억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24세 정도인 현재의 생각을 가미함으로써 인물의 지적 정서적 이데올로기적 특성에 따라 신빙성 없는 지각과 인식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는 병어리라는 장애에 대한 독자의 일반적인 사고의 틀과 함께 그 비판을 불식시켜버린다.

예컨대 경험이 부족하거나 순진한 화자인 김유정의 『봄봄』이나 『동백꽃』의 어리석은 ‘나’와 주요한의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주인공 ‘옥희’는 제한된 인식으로 인해 독자의 재해석을 요구하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처럼 어리석고 어린 화자에 대한 오류는 기존의 질서가 안고 있는 부조리함을 희화화하여 드러내므로 패쇄된 사고에 무감각해진 평범한 독자들을 자극하는 힘²²⁾이 있으며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병어리 삼룡이』의 경우 열 살이라는 연령을 준거로 하기에는 과잉된 감정의 묘사가 많다.

21) 정현숙, 『신빙성 없는 서술과 내적 초점화』,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22) 이수정, 앞의 책, pp.176-179. 참조.

예를 들면 정옥에 대한 대목으로 “마치 언제 폭발이 될지 알지도 못하는 휴화산 모양으로 그의 가슴 속에 충분한 정열을 깊이 감추어 놓았으나 그것이 아직 폭발될 시기가 이르지 못한 것”(p.34)이나, “그는 그것을 폭발시킬 조건을 얻기 어려웠으며 또는 자기가 여태까지 능동적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을 만치 외계의 압축을 받았으며 그것으로 인한 이지가 너무 그에게 자제력을 강대하게 하여 주는 동시에 또한 너무 그것을 단념만 하게 하여 주었다”(p.34)라는 문장들은 성인이 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문장은 삼룡이라는 인물의 인식이나 지각보다는 화자인 “나”의 인식과 지각에 의한 권위적인 서술이다.

소설 첫머리에 나오는 “내가 열 살이 될락말락할 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십 사오년 전 일이다.”(p.28)는 “내가”라는 주어로 시작한다. 그러나 “될락말락할 때”란 말에서 몇 살 때인지 자신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병어리 삼룡의 외모에 관한 표현이나, 심리, 성격묘사도 사실 확인이 안 된 화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작품은 화자인 “나”의 가치, 이념, 정서와 연관된 인식에 따른 삼룡의 삶을 신빙성 없는 서술로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화자가 서술하는 삼룡의 외모의 묘사나 사건에 관한 일들도 화자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므로 서술의 리얼리티에 대한 신뢰성을 갖기가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화자의 신뢰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서술은 또 있다.

삼룡의 주인인 오생원은 “여기에 그중 큰 과목밭을 갖고 그 중 여유 있는 생활을 하여 가는 사람”²³⁾이다. 그가 항상 감투를 쓰고 다녀서 동네 사람들은 양반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오생원이 정말 양반이라면 감투를 항상 쓰고 다니지 않아도 양반인 줄 알 수 있다는 의혹을 자아낸다. 그의 행동이

23) 나도향, 『병어리 삼룡이』한국단편문학선집, 진화당, 1990, p.29. 앞으로 인용문은 말이에 페이지수만 밝힌다.

부지런하고 또한 “가장 인심 후하고 존경을 받는 집인 동시에 세력 있는 집”(p.29)이라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몰락한 양반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 새로이 부를 축적한 신흥부르주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오생원 집의 하인이 삼룡이라는 병어리이다.

① 그는 몹시 부지런한 중년 늙은이로 <…> 그러나 그와 같은 때는 일 년 삼백 육십 일에 한 번 있기가 어려운 일이요, 이태나 삼 년에 한 번 있거나 말 거나 하였다.(p.29)

② 그가 이곳으로 이사를 온 지는 얼마 되지 아니하나 그가 언제든지 감투를 쓰고 다니므로 동네 사람들은 양반이라고 불렀고,<…>(p.29)

밑줄 친 부분인 ① 과 ② 는 상반되는 사항이다. “이태나 삼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라는 것은 그 보다 더 많은 해를 거치면서 보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②의 “이사를 온 지는 얼마 되지 아니하나”의 얼마란 잘 모르는 수량이나 정하지 않은 수량을 뜻하는 말로 보통 개인의 차가 있으나 1~2년으로 볼 수 있다. 즉 화자의 서술은 독자에게 혼란을 가져온다. 삼룡의 내면에 관한 확신에 찬 평가와는 대조적인 서술이다.

『병어리 삼룡이』의 화자는 때때로 지나친 권위의식으로 인물을 평가한다. 이는 서술자의 전지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객관적이지 못한 통찰이기가 쉬워서 역시 신빙성의 한계를 드러낸다.

① 그도 이 집 주인이 이리로 이사를 올 때에 데리고 왔으니 진실하고, 충성스러우며, 부지런하고 세차다. 눈치로만 지내기는 병어리이지마는 말하고 듣는 사람보다 슬기로울 적이 있고 평생 조심성이 있어서 결코 실수한 적이 없다.(p.30)

② 이러할 때마다 병어리 가슴에는 비분한 마음이 꼭 들어찼다. 그러나 그는 주인의 아들을 원망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병신인 것을 원망하였으며, 주인

의 아들을 저주한다는 것보다 이 세상을 저주하였다.(p.32)

③ 그는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의 눈물은 나오려 할 때 아주 말라 붙어버린 샘물과 같이 나오려하나 나오지를 아니하였다.<…>그는 이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어떻게 해야 면할까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하여 본 일이 없었다.<…>어떠한 때는 아픔과 쓰라림이 자기의 몸으로 스미어 들 때면 그의 주먹은 떨리면서 어린 주인의 몸을 치려다가는 그는 그것을 무서운 고통과 함께 꼭 잡았다.(pp.32-33)

④ <…>그는 그것을 곧 억제할 수 있을 만치 정욕에 대하여 벌써부터 단념을 하고 있었다.(p.34)

⑤ 속으로 나는 ‘병어리’다. 자기가 생각할 때 그는 몹시 원통함을 느끼는 동시에 나는 말하는 사람들과 똑 같은 자유와 똑 같은 권리가 없는 줄 알았다.<…>다시는 자기가 살아갈 세상이 없는 것밖에 알지 못하게 된 것이다.(p.34)

①-⑤에서 초점자는 외적 초점자이고, 초점 대상은 삼룡이다. 외적 초점자인 “나”는 삼룡이라는 인물에 대해 지나치게 확고하고도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서술의 주체는 화자이고, 지각과 인식의 주체는 삼룡이로 서술되나 초점자 인물의 지각과 인식이 서술에 반영되어 화자가 곧 삼룡이 되어버린다. 그는 삼룡의 지각과 인식을 권위적이고 전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며, 그 평가를 독자에게 강요하는 오류를 범한다. 즉 “실생활 속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것을 작자가 이야기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인위성이 개재된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들만을 알고 있으며, 그나마도 또 대부분의 경우 그 일부밖에는 알지 못한다.”²⁴⁾ 하지만 독자는 삼룡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작품은 “내가 열 살이 될락말락할 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십 사오년 전 일이다”(p.280)라는 첫 문장으로 인하여 독자를 위한 안내자 기

24) 웨인 C. 부스, 앞의 책, p.15.

능²⁵⁾을 역동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차라리 첫 문장이 없었다면 이 작품은 “신빙성”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개의치 않는 전지적 소설이 되었을 것이다. 즉 『병어리 삼룡이』는 “신빙성 없는 화자”를 처음에 위치시킴으로써 삼룡을 세계의 바깥쪽에서 권위적으로 평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신빙성의 여부를 의심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4. 전망

삼룡의 현실상황은 식민지 조선의 상황과 대비시켜 볼 수 있다. 당시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대항할 수 없었던 식민지 백성은 삼룡에 투영된 현실의 반영이다. 삼룡은 모순된 현실에 대항할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식할 능력도 결여되어 있다. 이 작품의 중요한 갈등은, 삼룡의 자기희생적인 충성에 대해 폭력으로 일관하는 오생원 아들의 행태이다. 이것은 일제의 핍박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식민지 조선의 세태일 수도 있지만 당시의 지주계급과의 갈등에서 빚어지는 계급사회의 냉혹한 생리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삼룡은 오생원 아들의 무자비한 폭력과 핍박 속에서도 오로지 주인의 아들이라는 신분상의 차이와 자신의 장애에 대한 태생적인 수용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의 충직한 하인으로서의 굴욕은 독자에게 분노와 슬픔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그것은 곧 폭력의 불씨를 은근히 지퍼 삼룡이 오생원의 아들에게 복수를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게 한다. 그러나

25) 김원희, 「단편소설 모두서술자 기능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

이러한 삼룡의 불행은 타자에게 인식되는 것이지, 삼룡이 자신에게는 인지되지 못한다.

화자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우며, 부지런하고 세차다. 눈치로만 지내기는 병어리이지마는 말하고 듣는 사람보다 슬기로울 적이 있고 평생 조심성이 있어서 결코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p.30)이라고 서술한다. 이 말은 만약 삼룡이 병어리가 아니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또한 정확한 현실 인식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삼룡은 자신의 굴레가 온전히 자신에게 속함을 인지하고 있다. 삼룡의 비극은 태생으로 인한 것으로 “나”라는 서술자의 의식 속에는 삼룡의 신분과 장애가 불가항력적인 천형이라는 보편적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곧 일제의 압박과 핍박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에 대한 좌절과 절망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할 때마다 병어리 가슴에는 비분한 마음이 꼭 들어찼다. 그러나 그는 주인의 아들을 원망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병신인 것을 원망하였으며, 주인의 아들을 저주한다는 것보다 이 세상을 저주하였다.<...> 그는 주인의 집을 버릴 줄 모르는 개모양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밖에 없고 자기가 믿을 것도 여기 있는 사람밖에 없는 줄 알았다. 여기에 살다 여기서 죽는 것이 자기의 운명인 줄 밖에 알지 못하였다. 자기의 주인 아들이 때리고 지르고 꼬집어 뜯고 모든 방법으로 학대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으레히 있을 줄 밖에 알지 못하였다. 아픈 것도 그 아픈 것이 으레히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요, 쓰린 것도 자기가 받지 않아서는 안될 것으로 알았다. 그는 이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어떻게 해야 면할까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하여 본 일이 없었다.(p.32)

삼룡의 인식은 “나”라는 서술자의 의도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데,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자신도 모르게 공감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 이

는 곧 삼룡의 굴욕과 울분은 서술자의 인식과 같이 ‘당연하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버린다. 즉 식민지 조선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현실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식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삼룡은 의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오생원 아들의 색시인 새아씨의 등장이다.

삼룡은 새아씨를 향해 “궁금증과 애상의 정서와 자기의 목숨이라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생명 같은 희열”을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삼룡의 일방적인 것이다. 새아씨의 삼룡을 향한 마음은 단지 측은지심에 지나지 않는다. 삼룡의 새아씨에 대한 연모의 자각은 오생원 아들의 폭력에 유린당하는 동병상련적인 동정에서 비롯된다. 새아씨가 자신과 다른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폭력에 똑같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삼룡에게는 의아하면서도 자신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 감정은 삼룡을 폭력에 맞서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자신을 확대하는 오생원 아들에게 절대 굴종을 보이던 삼룡은 새아씨에 대한 혐오의 정을 눈치 챈 오서방과 아들의 문전박대에 자신의 처지와 세상인심에 대한 자각을 보인다.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신분적 한계와 무지는 배반감과 극도의 분노로 이어진다.

삼룡은 “보기에는 황홀하고 건드리기도 황홀할 만치 숭고한 여자를 그렇게 학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세상에 있지 못할 일이다. 자기는 주인 새서방에게 개나 돼지같이 얻어맞은 것이 마땅하지마는 선녀와 짐승의 차가 있는 색시가 자기와 똑같이 얻어맞은 것은 너무 무서운 일이다.”(p.37)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삼룡의 마음에는 새아씨를 동정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서 “그를 위하여는 자기의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겠다”는 의분에 넘친다.

문학이 그 시대의 사회현상과 대중적 사고의 반영이라고 할 때, 『병어리 삼룡이』는 오생원의 아들로 대변되는 지배자와 새아씨와 삼룡이라는 피지

배자의 갈등 양상을 꺾진하게 드러낸다. 이들의 갈등은 동네 사람들이라는 동족의 호기심과 무관심이 교차하는 상황을 야기한다. 삼룡과 새아씨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와 꺾박은 무시되고, 오생원 아들의 무자비한 폭력은 당연시된다. 오생원은 아들과 삼룡의 사이를 중재하지 못하고, 아들의 편에 서고 만다.

삼룡의 자각은 한층 배가되어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다. 삼룡이 쫓겨난 새벽, 오생원 집에 불이 나고 -이 장면에서도 대부분의 논자들이 삼룡이 방화한 것으로 확정했지만 본고는 방화로 추정할 뿐이다²⁶⁾- 삼룡은 화염 속으로 뛰어 들어가 먼저 오생원을 업어 발 가운데에 놓고,²⁷⁾ 다시 새아씨를 찾으러 들어간다. 그러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오생원의 아들은 뿌리치고, 죽으려고 이불을 쓰고 누워 있는 새아씨를 안고 지붕 위로 올라간다. 새아씨를 무릎에 누고 죽은 삼룡의 얼굴엔 평화롭고 행복스러운 웃음이 서려 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는 비로소 자기의 몸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즐거운 쾌감을 자기의 가슴에 느끼는 것을 알았다. 색시를 자기 가슴에 안았을 때 그는 이제 처음으로 살아난 듯 하였다. 그는 자기의 목숨이 다한 줄 알았을 때 그 색시를 내려놓 때는 그는 벌써 목숨이 끊어진 뒤였다. 집은 모조리 타고 병어리는 색시를 무릎에 누고 있었다. 그의 울분은 그 불과 함께 사라졌을는지! 평화롭고 행복스러운 웃음이 그의 입 가장자리에 얹게 나타났을 뿐이다.(pp.44-45)

26) “그날 저녁 밤은 깊었는데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개 짖는 소리만이 들린다. 난데없는 화염이 병어리 있던 오생원 집을 에워싼다. 그 불을 미리 놓으려고 준비하여 놓았는지<...>”에서 방화로 추정할 수 있으나 확신할 수는 없다.

27) 삼룡이 오생원을 먼저 구한 것은 그가 계급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삼룡의 행동에서 우리는 유교적이고 봉건적인 충성심을 발견한다.

식민지 시대 핍박과 억압 속에서 결국 백성들이 선택한 좌절과 절망의 유토피아는 죽음에 다름 아닌 것이다. 삼룡이 자신에 관한 불행을 자각함으로써 그는 죽음이라는 유토피아에 도달하게 되고, 비로소 평화를 얻게 되었다고 화자는 생각한다. 삼룡은 태생이 병어리이고,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진 하인의 신분이다. 이 삼룡을 다른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망은 죽음일 따름이다.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유토피아적 전망은 모호하다. 모호하다는 것은 “그의 울분은 그 불과 함께 사라졌을는지!”라는 문장으로 알 수 있다. 과연 죽음이 완전한 유토피아인지 화자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삼룡이 죽음을 통해 “더 좋은 세계”에 도달했으리란 모호한 믿음을 갖고 있다. 새아씨를 안고 죽은 삼룡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인다고 화자가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로 『병어리 삼룡이』는 “사실을 기저로 한 낭만적인 미학적 승화”²⁸⁾라기보다는 화자의 모호한 “유토피아적 전망”에 바탕을 둔 비판적 리얼리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병어리 삼룡이』가 유토피아적 전망에 바탕을 둔 작품이라면 그 궁극점은 대부분의 논자가 평했듯이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인 삼룡의 새아씨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이라는 낭만적인 주제의 소설에 관한 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 즉, 본고에서는 이 작품을 일제의 불가항력적인 핍박과 억압에 대한 식민지 백성의 좌절과 절망의 서사로,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인물을 주제로 한 비판적 리얼리즘 소설로 결론짓는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의 구체적인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미룬다.

28) 안남연, 『나도향 문학의 사실성과 낭만성 고찰-〈병어리 삼룡이〉·〈물레방아〉·〈뽕〉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제8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1.

5. 결론

『병어리 삼룡이』는 나도향이 요절하기 전에 쓴 소설로 주요 인물인 삼룡의 삶과 죽음을 주축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의 신분이나 외모에 관한 묘사와 병어리라는 것에서 우리는 궁핍하고 모순된 환경에 억압된 한 무력한 인물을 본다. 내면적으로는 선량하고 충직한 하인의 신분인 삼룡은 핍박을 받고 굴욕적인 생을 살면서도 각성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새아씨를 향한 연모의 정을 가짐으로써 억압된 현실에 맞서게 된다.

“불”과 오생원 아들의 횡포, 폭력 등의 극단적인 요소와 죽음에 대한 결말은 당시 식민지의 상황과 긴밀한 관련을 가진다. 죽음은 탈출구가 없는 현실에 대한 삼룡의 “더 좋은 세계”이다. 그것을 소설 처음에 등장하는 “나”라는 화자가 인식한다. “나”의 회상으로 바라본 삼룡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 작품의 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존재는 소설 처음에 나오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도 “나”라는 화자는 배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병어리 삼룡이』의 화자는 “신빙성 없는 화자”가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신빙성 없는 화자의 시점에서 바라본 삼룡의 삶과 죽음에 관한 서술의 신뢰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나도향의 『병어리 삼룡이』는 “사실성을 근간으로 한 낭만주의적 성격”의 소설일 뿐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백성이 좌절과 절망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으로 더 좋은 세계인 죽음을 향한 모호한 전망을 가진 비판적 리얼리즘 소설로 본다. 아쉬운 것은 작품의 처음에 등장하는 “나”라는 “신빙성 없는 화자”로 인해 독자를 안내하는 수행자의 역동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작품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된 것이다. 즉, 『병어리 삼룡이』는 “신빙성 없는 화자”를 처음에 위치시킴으로써 삼룡을 세계의 바깥

쪽에서 권위적으로 평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신뢰성의 여부를 의심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본고는 나도향의 『병어리 삼룡이』가 단지 삼룡의 지고지순한 사랑이라는 낭만적인 관점에서 논의한 연구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삼룡의 절망과 좌절을 더 큰 틀에서 살펴보고자 노력하였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나도향, 『병어리 삼룡이』, 한국단편문학선집, 진화당, 1990.

2. 논문 및 단행본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 선명문화사, 1973.

김원희, 「단편소설 모두서술자 기능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

김운선, 「나도향소설에 나타나는 ‘낭만적 사랑’의 문제」, 『우리어문연구』 제18집, 2002.

나병철, 『근대성과 근대문학 - 리얼리즘 · 모더니즘 · 포스트모더니즘』, 문예출판사, 1995.

_____,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2012.

서재원, 「나도향 소설에 나타나는 열정의 의미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19호, 2003.

안남연, 「나도향 문학의 사실성과 낭만성 고찰-〈병어리 삼룡이〉·〈물레방아〉·〈뽕〉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8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1.

오양진, 「낭만적 주체성의 형성과 전개」, 『우리어문연구』 제19집, 2002.

윤홍로, 『나도향-낭만과 현실의 변증』,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7.

이수정, 「‘믿을 수 없는’ 일인칭 서술 -20~30년대 단편소설-」, 한국소설학회 편, 『현대소설 시점의 시학』, 새문사, 1996.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이혜령, 「성적 욕망의 서사와 그 명암」, 『반교어문연구』 제10집, 1999.

장수익, 「나도향소설과 낭만적 사랑의 문제」, 『한국문화』 제23호, 1999.

정현숙, 「신빙성 없는 서술과 내적 초점화」,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5, 지식산업사, 2005.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인간사, 1968.

한국소설학회 편, 『현대소설 시점의 시학』, 새문사, 1996.

한점돌, 『한국 현대소설의 형이상학』, 새미, 1997.

로버트 솔즈 · 로버트 켈로그 · 제임스 펠란, 『서사문학의 본질』, 임병권 역, 예림기획,

2007.

웨인 C. 부스, 『소설의 수사학』, 최상규 역, 예림기획, 1999.

미케 발, 『서사란 무엇인가』, 한용환·강덕화 역, 문예출판사, 1999.

Franz K. Stanzel, 『소설의 이론』, 김정신 역, 탑출판사, 1982.

Abstract

Consideration contemplation of view and description
in Na Do-Hyang's novel
- Focusing on 「A deaf, Sam-ryoung」 -

Kim, Jung-Hee

Stereotypical assessments about Na Do-Hyang focus on tragic life that the genius and premature death. In understanding his novel, therefore, it is not easy to maintain objectivity and previous studies are still in these categories. In 「A deaf, Sam-ryoung」, Sam-ryoung is represented a human being devoid of behavioral confrontation capabilities. He could be a in-between person of realism as a non-awakening figure. In his status as a servant or portrayal of his appearance and the don-né as a deaf, we can see a helpless person repressed on the deprived and contradictory circumstance. Although he persecuted and lived a humiliating life, Sam-ryoung, who is internally good and faithful servant, do not awakened. By having emotion of loving toward a bride, however, he acquires a typicality standing up to the repressed reality. Extreme elements such as the fire, the arrogance of owner's son Oh-sangwon and the violence, and the ending about death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colonial situation at that time. It is the last option about the reality devoid of escape.

Such death reveals the better world “utopian view” to Sam-ryoung. It is recognized to the narrator “I” who appear in the beginning of the novel. Sma-ryoung's story about the life and the death, from the eyes of “I”, can be the subject of this story. But, the narrator “I” is no longer appeared except in the beginning of this novel. In this respect, 「A deaf, Sam-ryoung」 becomes a novel written in the first person that “non-credible narrator” describes through the reminiscence. The reliability possibility of the subject on Sam-ryoung's life and death, therefore, through the description of thes

“non-credible narrator”, need to be thinking deeply.

Key Word : Na Do-Hyang, 『A deaf, Sam-ryoung』, utopian view, non-credible narrator

김정희

소속 : 상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주소 : (220-860)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로 156

전화번호 : 010-4474-2160

전자우편 : kkamhee59@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4년 7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7월 25일 게재 확정됨.
--

